

민주당, 전남 미래 청사진 제시...대선 7대 공약 발표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설립
여수 석유화학 대전환 특별법
신재생에너지 허브건설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전남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22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전환의 발판'이라며 7대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획기적 개선, 여수 석유화학 대전환을 통한 에코산업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허브 건설이 우선 포함됐다. 또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관문 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도 공약화됐다.

전남도당은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맞춤 공약으로 화순에 전남·광주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당은 석유화학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전환경 전환이 과제로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허브 건설과 관련해선 바다와 농지를 이용해 주민 참여 공익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 첨단산업의 경우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와 합평 미래모빌리티 특화산업, 그린바이오산업 혁신클러스터, 해남 솔라시도 글로벌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이 청사진으로 나왔다.

초광역 교통망의 경우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의 관문인 국제공항으로 승격 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의 해남·완도·진도 연장,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달빛고속철도 조기착공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미래 농수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남에는 K-농업 리더 지역 특화 첨단농산업 플랫폼을, 무안에는 K-푸드 융복합산업단과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여수 일원을 세계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순천의 세계 U대회 유치와 K-디즈니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전남의 미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제 다시, 전남이 선봉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대전환을 통해 전남의 대도약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이주여성 투표 참여 캠페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광산구 가족센터에서 열린 '광주 이주여성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석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속도...180억 투입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공모 선정

전남도는 22일 "전북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올해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공모에 선정돼 해상풍력 수요 등에 선제대응할 에너지산업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8개 대학(목포대, 순천대, 한국에너지공대, 동신대, 전북대, 전주대, 전남대, 조선대)과 2개 혁신기관(녹색에너지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이 컨소시엄을 구성

해 6년간 국비 145억원, 지방비 34억8,000만원 등 총 180억원을 지원 받는다.

선정사업은 전력계통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에너지 등 3대 분야다.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계통 운용과 관련 기술 분야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지역 인재 감소와 전문인력 양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 혁신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문인력이 호남권에 정착하도록 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공유, 지역 에너지 기업의 예로기술 해결,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산학 연계 프로젝트 등이 다. 참여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과 특화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전문성을 강화해 핵심 인재 양성체계에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공모 선정 계기로 호남권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급증하는 해상풍력 등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전남·북, 신재생에너지 머리 맞댄다

오늘 DJ센터서 정책간담회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2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과 올해 3월 협약에서 명시한 신재생에너지의 권역 내 우선 활용, 에너지원 공

동개발 등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3개 시·도 공무원뿐 아니라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전북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에너지 분야 공동 발전과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메가시티 첨단산업 육성 공모사업 연

계 전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 방안 등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전북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식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두고 호남권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협력한다면 에너지 전환시대를 함께 이끄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한 기자

소방청, 금타 광주공장 화재 협동조사단 구성

소방청은 21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화재합동조사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발

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으며 민간 분야 공학박사와 화재·안전 분야 대학 교수진도 자

문위원으로 나선다.

특히 최초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재현 실험을 주관해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비롯해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과 보완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단편영화 '오월' 5·18영화제 대상 수상

5월 재해석·세대 잇는 감동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자체 제작한 단편영화 '오월'이 5·18 영화제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2일 "제5회 5·18 영화제에서 방성수 감독의 단편영화 '오월'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올해 5·18 영화제에는 총 150편의 작품이 출품돼 본선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8편, 심사위원 특별상 1편 등 15편이 수상했다.

단편영화 '오월'은 현대적 감각의 연출과 세대 간의 기억을 섬세하게 연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받았다. 21분 35초 분량으로 3D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독특한 연출이 특징이다. 사진작가 민서(김보배)가 딸 은지(이유주)와 함께 어머니

의 묘소가 있는 광주를 방문하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1980년 5월을 기록했던 어머니의 사진기를 통해 당시의 참상을 직면한다.

영화는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손녀로 이어지는 여성 3대의 시선을 따라가며, 5·18 당시 여성들의 역할과 의미를 부각한다. 이 작품은 국가유신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으로 2023년 기록관에서 제작했으며, 현재 기록관 3층 영상실에서 수시 상영하고 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영화를 통해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모두가 역사의 주체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화로 재탄생한 5·18민주화운동은 그 의미의 지평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대와 공감대를 넓히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옥외광고물 정비·활용사업 '우수'

광주시는 22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정비반을 연중 운영,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등 시간대별 유동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 기간에만 게시하도록 전국 최초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소했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매체와 신

문,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에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총장로 일원 건물 50동, 업소 122개를 대상으로 간판 268개를 개선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소상공인 홍보수단으로 활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관내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는 15만635건으로 지난 2023년 83만6,182건 대비 82% 가량 대폭 줄어들었다. 김용현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육아는 한마음 아이는 큰희망

보건복지부 | 전라남도 |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 법원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채권자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 신입·경력사원 |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인사팀 | 법무팀 | 회계팀 | 행정팀

호남지사 062-417-4710 / 010-2603-1050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하린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